



디프로매트금고 프리미엄 금고

# “가구 들여놓듯 장만하세요” ... 금고도 ‘디자인 경쟁’

까만 다이얼이 달린 잿빛 정육면체 셋방어, ‘금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금고 전문 중소기업 디프로매트금고가 제작하는 프리미엄 금고는 금고라기보다 와인셀러(와인냉장고)처럼 생겼다. 장민철 디프로매트금고 대표는 “집안 어디에 두든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을 내놓으면서 금고를 마련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고 찾는 가정 늘어  
디프로매트금고는 2007년 1000만 불 수출탑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 일본을 비롯해 지금까지 금고를 수출한 나라는 100곳이 넘는다. 지난해 매출 200억원 중 140억원을 수출로 올렸다.

최근 들어선 국내 시장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금고를 찾는 가정이 10년 전에 비해 4~5배 늘었다. 장 대표는 “보통 여권이나 통장 등 알아야 하면 안 되는 물건을 한곳에 잘 모아두기 위해 가정에서도 금고를 구매한다”며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를 집에 들이는 일이 부쩍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국내에서만 매출 80억원을 거두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지난해 국내 시장 매출(60억원)보다 30% 이상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장민철 디프로매트금고 대표가 실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한 프리미엄 금고제품 넥스트를 설명하고 있다. 이우상 기자

## 올해 국내 매출 30% 성장 ... 80억원 목표 1000도 고온에서도 서류 1시간 동안 안전 가정용 금고 수요, 10년새 4~5배 늘어

◆가구 빼듯 디자인으로 인기  
금고를 찾는 가정이 늘어나자 디프로매트금고는 2012년부터 세련된 디자인의 금고를 내놓기 시작했다. 최고급 제품군은 ‘넥스트’다. 전자 키패드와 지문인식장치를 슬라이딩 도어 패널로 감춰놓아 평소에는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처럼 보인다. 화재 발생 시 외부가 1000도 가열

되도 60분까지는 안에 든 서류 등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기능도 갖췄다.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잠금장치가 있어 도난방지 성능도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충격이 감지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 경적 크기가 100데시벨(dB)의 경고음이 울린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깔끔한 디

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스텔라(사진) 제품군은 전면부 키패드를 없앴다. 오른쪽상단 회사 로고를 터치하면 0부터 9까지 숫자가 나타나는 방식이다.

파격적인 디자인 덕분에 아이스텔라는 지난해 ‘우수 디자인 인증’을 받기도 했다. TV홈쇼핑에서는 1시간에 200대 이상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지금까지 홈쇼핑에서만 2000여 대가 팔렸다. 가장 잘 팔리는 36L 크기 아이스텔라 금고 가격은 40만 원이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jkim@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 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태양산업조명-LED 완전반수등 (032)683-4501 △엔텍스-원시스템 오픈 마지(MAZI) 도어록 070-8285-4500 △디프로매트금고-프리미엄 금고 (051)831-4400 △아람휴비스-베베스캔 (031)732-6320

◆35년 된 금고 전문기업  
1982년 설립된 디프로매트금고는 35년 동안 금고 제품만을 제조하고 판매해 온 회사다. 1984년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내화성을 인정받아 KS인증을 획득했다. 스페인 미국 유럽 러시아 등 해외에서도 내화사업에 합력했다.

장 대표는 “금고 보급률은 100가구 2~3개 수준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유명 팜아티스트와 협업한 한정판 제품을 내놓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 중소 해외 판로 개척 KCON서 수출상당회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KOIRA와 함께 ‘KCON 2017 LA’ 연계 판촉전·수출상당회를 연다고 13일 발표했다.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KCON이 열리는 미국 LA 컨벤션센터와 LA 인터컨티넨탈다운타운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CON은 컨벤션과 콘서트를 결합한 CJ E&M의 글로벌 행사다. 이번 판촉전 및 수출상당회에는 뷰티, 패션, 생활용품 등 소비재 중심 50개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미국 현지 유통업체, 바이어 100곳과 1대 1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KCON 관람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홍보 및 판매 행사를 연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 “홍대거리 아닙니다” ...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는 G밸리

(구로·가산디지털단지)

### 내달 12일부터 행사 열려 댄스공연·음악회 등 다채

다음달 서울 G밸리(구로·가산디지털단지) 일대가 ‘제2의 홍대거리’로 변신한다. 댄스공연을 비롯해 패션쇼 음악회 당구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12일 저녁 가수 강산에 등이 출연하는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21일에는 댄스공연, 영상문화제, 당구대회가 펼쳐진다. 점심시간에 열리는 문화공연인 ‘춤추는 횡단보도’는 파란불이 켜진 짧은 시간에 음악, 춤 등 힐링타임을 선사하는 행사다. G밸리 영



지난해 가을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열린 G밸리 영상문화제에서 밴드들이 공연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상문화제는 게임·애니메이션 영상공연과 함께 입주 기업들의 캐릭터 전시를 통해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이다. ‘G밸리 직장인 당구대회’ 점심시간에 열리는 문화공연인 ‘춤추는 횡단보도’는 파란불이 켜진 짧은 시간에 음악, 춤 등 힐링타임을 선사하는 행사다. G밸리 영

23일과 24일에는 ‘G밸리 패션상공연과 함께 입주 기업들의 캐릭터 전시를 통해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이다. ‘G밸리 직장인 당구대회’ 점심시간에 열리는 문화공연인 ‘춤추는 횡단보도’는 파란불이 켜진 짧은 시간에 음악, 춤 등 힐링타임을 선사하는 행사다. G밸리 영

## “차세대 피부미용 레이저기기로 美·日 등 해외시장 잡겠다”

### 김정현 원택 대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지난 6월 아시아 업체로는 처음으로 피코초 레이저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초정밀 레이저 의료기인 피코초 레이저 의료기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정현 원택 대표(35·사진)는 지난 1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사무실에서 “피코초 레이저 기술은 상용화된 의료용 레이저 기술 가운데 최첨단”이라며 “피코초 레이저는 대당 가격이 1억원이 넘는 데도 애초 목표보다 두 배 넘게 팔릴 정도로 시장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피코(pico) 초는 1조 분의 1이다. 피코초 레이저는 피코초 단위로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더 정밀하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가 가능하다. 나노 단위 장비보다 1000분의 1 더 미세하다.

원택은 본사가 대한 유성에 있는 레이저 의료기기 전문업체다. 김 대표의 부친 김충원 회장(65)이 1999년 설립했다. 통신용 광케이블 사업을 하던 김 회장이 광케이블 기술을 이용해 레이저 의료기기를 제작해 보겠다고 결심한 게 계기였다. 첫 레이저 의료기기는 2001년에 나왔다. 그해 매출은 13억원이었다. 김 대표는 미

2007년 원택에 합류해 해외영업에 맡겼다. 2015년 김 회장과 함께 공동대표가 됐다.

원택은 피부미용 레이저 제품에서 사업영역을 넓혔다. 2010년 일반 소비자를 겨냥해 탈모 치료용 레이저 의료기기인 헤어빔을 내놴다. 저출력 레이저로 모근 주변의 모세혈관을 자극하는 원리였다. 출시 첫해 12억원이던 헤어빔 매출은 지난해 136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척추디스크, 갑상샘, 하지정맥, 유방암 치료에 쓰는 수술용 레이저 의료기기도 개발했다. 임직원 140명의 절반이 연구개발(R&D) 인력일 정도로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 목표는 미국과 일본 시장 공략이다. 사이노슈어, 시네론 캠펠라 등 글로벌 업체에 밀려 해외시장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미국에 현지법인을 세웠고 이달 일본에도 지사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원택은 탈모 치료용 레이저 의료기기 제품도 선보일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결심한 게 계기였다. 첫 레이저 의료기기는 2001년에 나왔다. 그해 매출은 13억원이었다. 김 대표는 미

50% 이상 늘어난 487억원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력권 기자 rklim@hankyung.com

## 다국적 제약사 바이오젠, 한국 본격 진출

### 바이오젠코리아 설립 국내 희귀의약품 시장 공략

다국적 바이오의약품 기업 바이오젠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의약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젠코리아가 유한회사 형태로 지난 달 14일 국내에 설립됐다. 미국에 본사를 둔 바이오젠은 지난해 매출 114억 4000만 달러(132조 원)를 올렸다. 림프종 표적항암제 마테라 개발사로 유명하다. 마테라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특특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바이오젠은 2012년 5.4%의 지분을 가지는 조건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했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에

피스의 지분율을 ‘50%+1주’로 높일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물옵션) 계약을 맺었다. 바이오젠이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 이 권리를 행사할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바이오젠이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프린라의 허가에 맞춰 한국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젠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프린라의 품목허가 신청을 냈다. 지난 10일에는 스프린라가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신속 허가 심사가 진행돼 조만간 품목허가가 날 전망이다. 스프린라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신청에서 허가까지 3~7개월이 걸렸다. 스프린라지는 현재까지 유일한 SMA 치료제다. 이력권 기자 rklim@hankyung.com

<p><b>부동산</b></p> <p><b>[직]산청군 금서면 매촌리</b> ●산업단지 부지 급매● 공정용지(금속가공제품제조업) 토목공사완료, 창업중소기업 지원혜택 13.884㎡ / 3.3㎡당 40만 매16억8천 (주인제) 010-2600-2850</p>	<p><b>★보증금15억, 월5,000만★</b> 7월준공 독립입반호실 60실 광명 K.T.우부근 용자70억가 반경2.3km이내 호별無 ※매매가 108억 (상구자판) 010-3228-3246</p>	<p><b>통일로·C 근처 아적장</b> 고양시 대자동 잡종지 5,550㎡ 근생허가 232㎡ 2동, 축사 230㎡ 대형컨테이너농장가능, 분할매매가능! T. 010-9780-2177</p>	<p><b>◆수도권대학가 10%대 수익성건물</b> 대 345㎡ / 건 1,099㎡ 주변 여러대학과 대형병원 소재 월임대료 2,700만 지하1층 / 지상6층 매매가 27억 02-569-3815</p>	<p><b>안성·천안 공장매매</b> ●안성식품투무공정(기계설비포함) 부지8,700㎡/건8,200㎡ 매가 20억 (공실 2 / 용지 43%) ●천안공장 부지13,760㎡(4,160) 건축2,860㎡(865) 위치:경부고속도로 북진로에서 5분 매가 45억 (02)569-4988 (실소유자회사)</p>	<p><b>★분양사가 파격 매각★</b> 2호선 전철역 대로변 상업지역 보 82,000㎡ / 월 4,500만 (공실 2 / 용지 43%) 최초 분양가 180억 대지분 600㎡ (시세 145억) 급매가 85억</p>	<p><b>▶최고 위치 개발부지▶</b> ●대 920㎡ → 매가 45억 (역 앞대문 코너, 앞면적 50% 증상복합) ●대 1,940㎡ → 매가 129억 (전철역 앞 삼선코너, 삼선4급) ●대 6,850㎡ → 매가 350억 (대문번시거리 코너, 시세이해 급매) ●대 5,600㎡ → 매가 390억 (대문번시거리코너, 햇이슈 지역)</p>	
<p><b>[공장 급매물] 29억원</b>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리 321, 318-1 대지면적 13,658㎡ 연면적 2,733㎡ 호이스터 28톤 4기·5톤 1기, 동력 400kw 02-549-0090/010-7167-4661</p>	<p><b>★원룸 매매(5층)★</b> 고려대 법대쪽(4년 대라석, 배관) 36동, 보1억5천/월1,500만 이상 공실없음, 해물귀한곳, 인접적 수익가능 매매 24억 (용자9억포함) T. 010-7722-1340</p>	<p><b>수익성 빌딩</b> ▶대 1,500㎡ / 건물 8,000㎡ ▶지하철2분, 서울역세권 ▶보 45억 / 임 1.2억 매가 260억 빌딩뱅크 (02)519-3010</p>	<p><b>태양광 월차 매입</b> 10,000㎡이상 1644-4192 대한민국 태양광1등 기업 경원파워(주) 010-5110-5660</p>	<p><b>수익률 7~9% 100%만실</b> (급)수원 오피스텔빌딩 매매 ▶부지756㎡(229) ▶건축5,000㎡(약1,500) ▶중상상업지역내 지하2층 지상8층 ▶임대료 월 4,300만원 관리비 500만원 매가 75억 (02)569-4988 (실소유자회사)</p>	<p><b>★강남-급매★</b> 초역세권 빌딩(명동) 일부사옥 / 일부수익용빌딩 지하 1층 / 지상 9층 급매가 118억 전속부동산 02)545-1551</p>	<p><b>★서울 초역세권 개발부지★</b> 2호선 전철역 대로 상업지역 대 1,400㎡ (보/20층 건축가)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최적위치 (현재) 보2억 / 월7,600만원 매각금액 410억 ※실 구입하십시오 전화요망 02-6006-0023</p>	
<p><b>특관광호텔 특급매</b> (서울초급전 대도시) ●대 1,570㎡ 지 1,03㎡ 2/9층동복80 ●2015년 최첨단신축오픈 상업중 -주 1 국외거주 경영상급처분- 현용122억승계: 현금30억 010-7484-7870</p>	<p><b>호텔(特A급)초급매</b> (월매출1백2천) ●대 954㎡ 지 3,231㎡ 1/6층동복59 ●최첨단최고시설(2013년신축오픈) -보8억~월4,000萬대기- 용58억: 현금7억 010-7484-7870</p>	<p><b>특급 모텔 급급매</b> (전철역앞사립비교급) ●대 363㎡ 지 1,674㎡ 8층 동복48실 ●2013년 신축오픈 최고명당상권 -보5억~월1,500萬나올- 용27억: 현금3억5천 010-7484-7870</p>	<p><b>모텔(特A급)급급매</b> (사내중심 유류가밀집) ●대 460㎡ 지 1917㎡ 4층 동복27실 ●2016년 신축오픈유류가대박상권 -보2억~월1,350萬대기- 용15억승계: 현금4억 010-7484-7870</p>	<p><b>特別 고급주택 급매</b> (서울초급전거)●대 489㎡ 건물 251㎡ 2층 ●2012년 조망관파동(상세상권명) -명화할명나온집- 매매가 15억 010-7484-7870</p>	<p><b>★강남 임대 수익용★</b> 강남 역출구 5분 6층 건물, 급매가 68억 대 880㎡ 연1500㎡ 자주수주자 10대이상 가능 보안/물/전기/난방/임대용 임대수입 풍부 동권역/강남역/노후도시 및향후개발 지역 02-590-6055</p>	<p><b>영종도 상가매매</b> 구름버터 카페 거리 관광펜션 23실(3층) 동매 바다일조망 보3억/월2천 매45억 010-4428-7012</p>	<p><b>용인공장 및 입지매매</b> ●부지: 8,800㎡/건: 1,878㎡ 매가 36억5천 위치: 제2경부고속도로 용인항남IC(제2차)근접 ●임대: ~6000평 월당 15,000원 ●부지: 10,000㎡(3,000㎡) 건축: 3,200㎡(960㎡) 위치: 영지IC에서 약 5분거리 매가 29억 (02)569-4988 (실소유자회사)</p>
<p><b>모텔 특급상권</b> 사당역 최고지점 송파구 방이동 대 221㎡ / 건 1,024㎡ 대 349㎡ / 건 1,117.78㎡ R28 매가 68억 R28 매가 95억 010-4328-2987</p>	<p><b>원주빌딩급매</b> 원주시 중앙동빌딩 대지 478㎡ 건 1815㎡, 상업지역, 지하2, 지상5층 보 2억, 월 1800만 가능 대문번시거리 상권중용, 용10억가능 현시세 30억 → 매매가 13억 이사장 010-8705-0347</p>	<p><b>●급매 105억 → 92억●</b> ●서울빌딩 용60억 현금25억 ●대, 건 합 2330㎡ 6층 신축 ●주인 외국 이주 문제로 급 02-6006-0068</p>	<p><b>평택 권관리 땅</b> 계화관리, 바닷가 관광단지, 2차선도로변 3.3㎡당 160만원씩 031-684-7575</p>	<p><b>★투자용 물류 창고★</b> ●서이천 IC 근 ●대지: 32,396㎡ 건물: 15,206㎡ ●보10억 원 ●임대료: 1억2000만원 ●매210억 ●물류창고 부지 대량 확보 ●양지 ●역세권 ●서이천 ●남이천 IC 근 요약설명 010-3757-0051</p>	<p><b>강서구 수익형 건물 67억 급매</b> 명동중공업역, 7차선대문, 유동인구 많음 전용공실임용, 대지 720.5㎡, 연면적 158㎡ 지하용·상3층, 보 4억5000원 월 250만원(부가세별도), 대출 36억 가능 010-5547-5632</p>	<p><b>포천 신축빌라 급매</b> 99㎡(30) 매 1억3500 대출 1억1600 1900만원 내집마련 010-5355-1789</p>	<p><b>◆강남 초역세권 고수익빌딩◆</b> 보 9억 / 월 750만 매가 28억 ◆시대문구 이대 정문 앞 빌딩◆ 보 2억9천 / 월 1,300만 매가 30억 ◆광대로변 사거리코너 수익 6%◆ 보 2억5천 / 월 1,800천 매가 40억</p>
<p><b>★확실한 모텔 임대★</b> 추석과방문의 송추유원지 30개 보 2억 / 월 500만원 010-5358-3081</p>	<p><b>임야 매매</b> 경북 봉화 임야 63,000㎡ (평지2천평 개간가능) -신지대 개곡물, 밭땅이 커, 논 농수 다수 -전망: 넓은호수, 노송나무(솔마당) -신지대까지 자동차 이용가능 010-9093-4648</p>	<p><b>신축건물 매매</b> 역삼동 778-29 대지 212.5㎡ / 실면적 약 700㎡ EV유 역삼-한티역인근, 풀옵션, 옥탑방 군생32K(140㎡) 한층(80㎡) 2층(80㎡) 임대료 1,800만 (주차비별도) 2017. 5. 준공 매가 42억 주인제 010-5226-1534</p>	<p><b>★층상 신축 원룸매매★</b> -아산시 신항면 순천항대문 5분거리- ▶신축원룸 대 587㎡ / 건 542㎡ ▶방24개 (바란다, 도시가스, 풀옵션) ▶매매가 9억2천만 (용 2억5천) ▶실투자 4억5천 [연수익 5천만] 주인제 010-3011-3412</p>	<p><b>★혁신 모텔★</b> 대 1,895㎡ / 건 1,221㎡ 노후대차 최급 월매출 4,000만 / 용 12억 요양병원 최적 객실30개 임대3억5천/월세800만 월분대기중 현금 13억 (교환가능) 010-7377-1333</p>	<p><b>○양과대학지 연구시설제조지○</b> 대 10,909㎡ 지 1613㎡(건축면적 835㎡) 건축면적 1,340㎡로 4층 신축 가능 (건매출 20%, 용적률 80%) 현재 전자기술연구 제조 매가 32억 043-217-8005</p>	<p><b>동대문구 모텔매매</b> ▶최근 4억 수리한 골건 ▶대지 165㎡ / 연면적 330㎡ ▶객실 18개, 용자 13억 가능 ▶예상매출 3500만원 정도 매매가 19억 010-2337-3394</p>	<p><b>◆강남 5% 명품 신축빌딩◆</b> 보 7억 / 월 7,200만 매가 210억 (02)512-7255</p>